

II. 主要 經濟 懸案

1. '96年度 政府 豫算案

- (內容) 정부의 財政規模는 63.8조 원 정도로 '95년에 비해 16.4% 정도 증가함. 重點 支出 分野는 중소기업지원, 사회간접자본 확충, 교육재정 등으로 成長潛在力의 擴充에 재정운용의 주안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음
- (評價)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재정정책의 주요 목표가 올해의 經濟安定化에서 成長潛在力의 擴充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음. 또한 대규모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상반기중 미집행된 재정지출이 하반기에 집중될 것을 고려하면 '95년도 下半期와 '96年度에는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總需要 增加 壓力이 적지 않을 것임

'96년도 정부의
재정규모는
63.8조 원 가량
으로 95년에 비
해 16% 정도
증가함

- 主要 內容
 - 정부의 財政規模(일반회계+재정투융자 특별회계)는 63조 8천억 원으로 '95년 예산에 비해 16.4%가 증가함
 - 統合財政收支도 올해의 1.1조 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9천억 원 가량의 적자로 편성됨
 - 重點 支出 分野를 보면 成長潛在力의 擴充에 재정운용의 주안점이 주어짐
 -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, 사회간접자본 확충, 교육재정 확충, 복지·환경 분야 개선에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안점을 둔다고 밝힘
 - 복지·환경분야를 제외하고는 중점 지출 분야가 성장 잠재력의 배양과 관련이 있음

< 主要 部門 豫算 >

(단위: 조 원)

재정규모	복지·환경	중소기업	사회간접자본	국방비
63.8	4.3	2.1	7.4	12.2

○ 評價

- 재정정책의 주요 목표가 經濟安定化에서 成長潛在力의 擴充으로 바뀐 것을 의미함

**재정 운용의 주
요 목표가 경제
안정화에서 성
장 잠재력의 배
양으로 바뀜**

**재정이 팽창하
고 통합재정수
지가 적자로 편
성되는 등 재정
팽창으로 인한
총수요 증가압
력이 적지 않을
것임**

- 재정규모의 증가율(16.4%)이 내년도 경상 경제성장률(12.3%)보다 높아 정부 財政이膨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
- 특히 경제안정과 관계가 깊은 統合財政收支가 0.9조 원의 적자로 편성되어 92년 이래로 유지되어 온 긴축기조가 해손됨 ('95년도 통합재정수지는 예산기준으로 1.1조 원의 적자지만 긴축적인 재정운용과 세수 증가로 결산상으로는 1.5조 원 가량의 黑字를 이를 것으로 예상됨)
- 반면 사회간접자본시설, 중소기업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분야의 지출이 증대됨
- 이는 내년도 景氣 鈍化를 염두에 두고 경기안정화 대신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으로 보임
- 財政이膨脹하고 統合財政收支가 赤字로 편성됨에 따라 物價不安의 가능성성이 높아짐
 - '95년도 상반기중에는 정부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물가안정에 재정이 일조를 담당함
 - 하지만 '95년 상반기에 미집행된 재정지출이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며, 올해 대규모 추경예산이 편성되었고,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도 적자로 편성됨으로써 연말부터 재정 팽창으로 인한 총수요 증가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

< 年度別 財政關聯 指標 >

	1991	1992	1993	1994	1995	1996
경제성장률(%)	20.2	11.4	10.5	14.1*	14.9*	12.3*
일반회계+재특(조 원)	34.2	36.2	40.7	47.6	54.8	63.8
증가율 (%)	(10.0)	(5.8)	(12.5)	(16.8)	(15.1)	(16.4)
통합재정수지(조 원)	-4.0	-1.7	0.8	1.4	-1.1	-0.9

주: '95, '96년도는 예산 기준임

*는 잠정 또는 전망치

자료: 재무부, 『한국의 재정통계』 각 호
재정경제원

(박 기 백)